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1.(목) 14:00 < 1.12.(금) 조간 > 배포 2024. 1. 11.(목)

‘24년 수출, 반도체가 앞장선다

- 올해는 반도체의 해, 반도체 새 활용(업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우상향 전환 국면(모멘텀) 확고해져
- 3대 수출정책 방향 차질 없는 추진… 반도체 초격차 유지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설비(라인)를 직접 확인하였다.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현장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수출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세계(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무 현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올해에는 정보기술(IT) 업무 현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새 활용(업사이클)으로 진입하여 ‘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전환 국면(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해(’22년, 1,292억 불)에 전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년, 6,836억 불)”라면서 올해 수출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올해 수출은 반도체가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①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 최고급의 수출 지원사업 집행, ②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③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반도체 수출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1. 11(목), 14:00~15:30 (90분)

○ **장 소** :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익노 무역정책관, 정상용 무역정책과장
- (**기업**)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티이엠씨 유원양 사장 등
- (**수출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 (**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 **주요 내용** : 반도체 생산현장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5:30 (90′)	90′	**SK 하이닉스 방문**	
	(45′)	**❶ 생산라인 점검 (EUV 등)**	비공개
	(45′)	**❷ 수출지원 간담회** ▸ 반도체 산업 동향·전망 브리핑 ▸ 자유 토론	모두발언 공개